

한·터키 경제인 초청 오찬 연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부러 일어나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외교라는 것을 오늘날 국가원수의 중요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경제외교보다 우리 국민들의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인사를 터키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큰 방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제 얘기를 하기 전에 55년 전 터키 국민들이 우리 한국을 도와줬던 일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경제 얘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55년 전 우리 한국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터키 국민들은 1만 5천 명의 군대를 한국에 보내 줬습니다. 그중 7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07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싸워 줬고, 그 용감성은 한국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를 발전시켰고, 경제에서도 세계 11위의 경제를 말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민은 터키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앙카라 공원이 있어서 자주 가 보곤 했습니다. 오전에는 앙카라에 있는 한국공원을 방문해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터키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작년에만 5만 7천 명 정도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람 모두 터키 국민들이 한국 국민을 좋아한다는 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터키 국민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지금 통역을 하는 분이 쓴 책에도 터키가 피를 나는 형제의 나라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여러 번 다녀갔지만 한국 국가원수가 오지 못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불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뒤로 미룰 수 없고 꼭 가서 인사해야 한다고 외교부 장관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백번 옳은 소리여서 가자고 했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에 이 같은 우의에 비취 볼 때 양국 경제교류, 무역, 투자 등이 충분치 못해 항상 마음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터키도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한국도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처지로 보면 1989년에 한·터키 간 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국의 역량이 터키 시장을 넘겨다보거나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됐다고 합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한국 경제가 획기적인 개방을 하면서부터 이제 교역이 확대되려고 했는데 1997년에 그만 외환위기를 맞아 2001년, 2002년까지 외국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버렸습니다. 2003년에도 그 후유증이 남아서 또 한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극복했습니다. 물가든 외환이든 경제성장률이든 실업률이든 모든

측면에 있어 한국 경제는 회복됐습니다. 지금 아주 탄탄한 경제체력을 갖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보다 앞서 급속히 안정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에르도안 총리를 만났을 때에도 경제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지만 매우 희망찬 터키 경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서로 협력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오전에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동행한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앞으로는 경제 교류와 협력이 되는 게 아니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것은 틀림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5개 경제단체 대표들과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이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릅시다만 제 눈에도 터키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경제인들도 이번 터키 방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의 대화를 통해 터키 경제의 가능성과 어떤 일을 함께할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능성 한 가지는 길거리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치는 터키 국민들의 표정이 매우 밝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원보다도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100명 정도의 양국 경제인과 함께 대화를 할 것이라고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과 터키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이 이처럼 예상하는 범위를 항상 뛰어넘는 폭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꼭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터키 시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한국에서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무역 불균형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할 수입은 하고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상품을 많이 사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양쪽 다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터키가 다른 쪽에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역수지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무역외수지까지 총동원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